

낮보다 밤이 길어진다는 '추분' 이 지나면서 TV에 겨울을 겨냥한 보일러 CF가 눈에 띈다.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카피가 겨울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고향 부모님 댁 '보일러' 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은 바로 '에너지 효율' 이 아닐까?

에너지 효율은 제2의 에너지 생산과 같다. 같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게 되면 에너지 절감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제품에 표시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효율이

'부모님 댁에 보일러!' 이제 에너지효율 따져봐야



황 주 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고, 제조사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이다. 1등급 에너지 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5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보다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하게 된다. 절감한 만큼 소비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다.

1992년 시작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가 올해 새 옷을 입게되었다.

그 동안 1등급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오던 등급 표시제. 소비자 입장에서 가전제품 매장을 찾으면 1등급이 아닌 제품이 거의 없을 정도다. 최근 조사결과 가전 제품은 소형냉장고 36%, 대형냉장고 95%, 김치냉장고 60%, 세탁기 49%가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의 변별력이 없어지자 지경부는 판정기준을 까다롭게 해 현재 30%가 넘는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율을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등급표시의 분야를 넓혀 텔레비전도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으며, 삼성 유도 전동기(산업용 모터)의 경우 효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켜 저효율 산업용 모터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산업계의 불멘소리가 들린다.

국산 가전제품의 소비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산업계의 부담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약 10~20% 정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 보다는 시장 수요에 의존한 단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 판정으로 2020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에너지 비용 절감은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부품 개발과 완제품 생산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간간한 에너지 효율 판정에만 집중된 관심을 쏟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전반을 지원할 때 '또 하나의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에너지 효율 1위 국가가 될 때 '부모님 덕 보일러'도 에너지 효율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설치해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KEA